

지역 소식 통

정읍시, MZ세대와 ‘브런치 소통 토크’ 정례화 나서

정읍시가 MZ세대 신규직원과 함께하는 ‘브런치 소통·공감 토크’를 정례화 세대 간 공감과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근무 경력 1년 미만의 신규직원 12명과 이화수 시장이 함께하는 ‘브런치 소통·공감 토크’를 세 번째로 열고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 정례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점심 식사를 매개로 한 편안한 대화의 장으로, 공식생활에 대한 궁금증부터 조직문화에 대한 의견까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딱딱한 회의 형식이 아닌 소규모 소통 방식이어서 참석자들은 보다 솔직한 목소리를 내며 상호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됐다.

그간 진행된 세 차례의 브런치 토크를 통해 시는 MZ세대 직원들의 진솔한 고민과 제안을 꾸준히 청취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에 실질적인 반영을 시도해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축제장서 청렴 문화 · 적극행정 캠페인

고창군이 제22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가 열린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행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청렴 홍보부스 운영 △청렴 실천 다짐 인증 포토존 설치 △자제 제작한 청렴 부채를 나눠줬다.

축제 방문객은 물론 행사에 참여한 공식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고창군 반부패 청렴 정책 홍보 및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특히, 축제 기간 중 찾아오는 부정부패 신고 및 고충 민원 상담센터 운영으로 공식직자의 권한 남용과 갑질 행태, 소극적인 업무처리 경험에 대한 접수와 상담을 진행했다.

군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경청하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성료

빛속에도 9만1000명 찾아... 수박빨리먹기대회 등 프로그램 차질 없이 진행

고창군은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제22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우천에도 불구하고 약 9만1,000여명의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한 축제에는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아 지역 명품 농특산물인 복분자, 수박, 장어 할인판매와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공연 등을 적극적으로 즐겼다.

특히 우천 속에서도 수박빨리먹기대회, 수박농장어 시식행사, 고깔고깔 수박찾기 게임, 장어 잡기 행사, 장어물 3종경기, 수박카빙대회 등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

고창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존에서는 우산을 쓰고서도 기꺼이 줄을 서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축제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기 가수 김수찬과 요요미가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열정적인 축하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버블쇼, 분쇼와 마술쇼 공연을 하는 키즈콘서트, 버스킹 공연,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등도 비에 젖은 관객들을 위해 더욱 신나고 재미있게 꾸며져 방문객들



고창군은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제22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우천에도 불구하고 약 9만1,000여명의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씨를 잊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비가 와도 개의치 않고 여름철 건강을 책임지는 고창 대표 농특산물인 복분자, 수박, 장어를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비가 내리는 곳

은 날씨에도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축제를 찾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즐겨 주신 덕분에 고창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려 농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가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서관 협업 · 업무 공유 강화”

권익현 부안군수, 자연유산 활용 지역특화 정책 추진 등도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부서관 협업 및 업무 공유 강화를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23일 열린 6월 연석회의에서 “행정이 복합·다변화되면서 부서관 유기적 협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국비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 정책 연계 대응 등은 여러 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돼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서는 자신의 업무가 타 부서와 어떤 접점이 있는지 늘 점검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행정은 내 일과 남의 일을 나눌 수 없다. 부서관 긴박이를 허물고 부안군 전체를 위해 협업이 필요한 업무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정부는 자연유산 보존·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제1차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명승·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본격 추진 중이다”며 “부안이 보유한 다수의 자연유산을 관광, 생태, 교육 등 지역 특화형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맞춤형 실행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발달장애인 위한 ‘건강체크’ 자립 지원

정읍시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촘촘한 복지 행보에 나섰다.

정읍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는 지난 20일, 시 보건소와 연계해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12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건강체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발달장애인의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 진단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검사는 인바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소그룹 순환 방식으로 안전하게 실시했다. 특히 복지관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 변화 추이를 기록하고, 이를 자립훈련 계획에 반영해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고혈압, 비만 등 건강위험 요인이 확인돼 보호자에게 개별 안내가 이뤄졌고, 검기운동과 식이조절 등 생활 속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관리에 나섰다. 이는 단순 건강검진을 넘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이용자의 자립을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귀농 창업 · 주택자금 저리 지원

정읍시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과 주거 마련을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8일 사전설명회를 열어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업에 새롭게 도전하는 귀농인에게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정부 예산으로 이자를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세대당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 한도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 한도 내에서 사업실적과 대출기관의 신용·담보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금액이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의 귀농인 또는 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재촌 비농업인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군정질문 통해 지역현안 해결의제 집중 조명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현장답사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제38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답변 결과 보충질의와 현장 확인을 시행하여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에 참여한 의원들은 행정, 경제, 복지, 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실생활과 맞닿은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더 나은 부안으로의 발전을 위한 질문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원별 군정질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대 의원은 부안청자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부안군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 주요도로 주정차 문제 해결방안, 외국인 주민을 위한 행정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세 의원은 청년임대주택 공급 방안,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확대방안, 해뜰마루 관광콘텐츠 개발 계획,

고양송전선로 건설 관련 군민 갈등 해결방안 등을 촉구했다.

김원진 의원은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 현안, 새만금 미래 전략사업 실현 방안, 부안군 공무원 인력운영과 복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한수 의원은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변산면 등 지역발전 제약 해소 방안, 부안탐 일원 탐방로 조성 및 관광자원화 방안, 계화 농로포장물 저조 대책 방안, 자연경관 활용한 관광지 조성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김광수 의원은 수성당 활용한 부안관광 활성화 방안, 부안 관문형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계획, 부안군 회전교차로,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복구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촉구했다.

이현기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신동진비 공급중단 대응 방안, 통합 RFC 추진을 위한 군의 대책 방안,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

고 했다.

박태수 의원은 출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부안군 위계이전센터의 활성화 방안,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다.

김두례 의원은 육아휴직 장려와 대체인력 수급 방안, 재활용품 수거 포인트 확대,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수립, 마실축제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계획을 요청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과제들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답이 있다. 정책이 실제 군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 회복에 힘을 보태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